

##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성인용 매체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동준<sup>1</sup>, 맹성준<sup>2</sup>, 최상설<sup>1</sup>, 김은경<sup>3\*</sup>  
<sup>1</sup>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sup>2</sup>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sup>3</sup>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o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 Focusing the Mediating Effect of Adult Media Immersion

Dong-Jun Lee<sup>1</sup>, Seong-Jun Maeng<sup>2</sup>, Sang-Seol Choi<sup>1</sup>, Eun-Kyung Kim<sup>3\*</sup>

<sup>1</sup>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sup>2</sup>Center for Social Welfare Research, Sungkyunkwan University  
<sup>3</sup>Dep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둘 간에 성인용 매체몰입이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제6차(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563명을 대상으로 Hayes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방임이 증가할수록 또래애착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인용 매체몰입은 부모의 방임과 또래애착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한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이다. 셋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 매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a parental neglect affects a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adult media immersion has a mediating effect. To achieve this goal,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panel of 'the 6th(2015)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was utilized. Using SPSS PROCESS Macro developed by Hayes, 'Bootstrapping' was employed to examine the significancy of the mediating effect on 563 objectives. According to the study, first of all, more parental neglect gave rise to less peer attachment. Second, the adult media immersion partly mediates the parental neglect and the adolescent's peer attachment.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results are below : First, parents' care and affection inside a home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healthy peer attachment of adolescent. Second, a parent education is important to prevent an adolescent's adult media immersion. Third, an adult media education for an adolescent is desired.

**Keywords** : Adolescent's Peer Attachment, Parental Neglect, Adult Media Immersion, Addiction, KCYPS

\*Corresponding Author : Eun-Kyung Kim(Sungkyunkwan Univ.)

Tel: +82-2-760-0631 email: ekim524@hanmail.net

Received February 8, 2019

Revised March 12, 2019

Accepted May 3, 2019

Published May 31, 2019

## 1. 서론

청소년기는 가정에서 형성된 애착이 학교 혹은 또래집단으로 보다 넓은 체계로 확대되는 시기로[1],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의 핵심요소로서 또래 간 관계형성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기의 또래들과의 관계는 가정 밖에서 1차적인 배움의 관계인 동시에 최초의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필수적인 관계이기에 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잘못 형성된 또래관계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비행이나 탈선 등의 잘못된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2,3].

현재까지 또래관계 형성이 가지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또래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자아존중감, 성격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방식, 가정의 경제수준, 사회적 활동 등과 같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4-8].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방식은 중요한 요소로 밝혀지고 있는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형성은 청소년들이 가정 밖의 환경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기초로 기능하는 반면, 불안정한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가정 및 학업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9,10].

또 다른 개인적 요인의 측면에서 매체와 관련된 과몰입 혹은 중독의 문제는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기인하여 최근 들어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청소년 시기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또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중독 혹은 과몰입은 또래와의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중독과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청소년들이 컴퓨터,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의 매체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폭력이나 공격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밝혀졌다[12-14].

한편 이러한 과몰입과 중독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를 접했을 때 보다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최근 조사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15]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가 가지는 접근성이 타 항목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항목 역시 성매매·음란 정보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10~18세 청소년 응답자들의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가장 우려해왔던 폭력·기타 정보보다 청소년 이용 불가 음란 정보에 대한 접촉 경험이 모든 항목 중 가장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

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성인용 매체에 대한 청소년들의 과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성행위에 대한 그릇된 사고를 형성해나가고, 이는 다시 성적인 행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데 그 문제성이 크다 할 수 있다[16-20]. 동시에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청소년 주변의 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21,22]. 즉,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과몰입하게 될 경우 잘못된 성에대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이성친구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23].

청소년들이 이처럼 성인용 매체에 몰입하게 되는 이유는 청소년기는 성인기에 비해 자제력이 낮고 성적으로 충동적이며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24]. 따라서 부모님의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과 같은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라는 유혹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아이들은 어떠한 매체에 심각하게 빠져들고 집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결국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들이 성인매체에 몰입하게 만드는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할 수 있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몰입, 또래애착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게 규명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를 고려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25,26], 매체중독과 또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12-14], 그리고 부모의 양육방식이 매체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7-30]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꾸준히 수행되고 있지만 제 요소가 가지는 통합적인 맥락을 짚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실태조사’에서 역시 청소년 보호 대책들의 효과성과 관련하여서는 학부모의 관심 제고가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15],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와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 몰입 수준’, 그리고 ‘또래들 사이에서의 애착’이라는 세 요인에 대한 명확한 관계의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2. 이론적 배경

청소년들의 또래애착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애착을 바

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애착 즉, 양육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애착을 기반으로 좋은 양육방식을 형성한다면 또래와도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며 좋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좋은 또래애착을 맺는 것은 학교생활에도 적응하기 수월하다[31]. 반대로 부모의 좋지 않은 양육방식으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애착결핍의 원인으로 청소년들이 또래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 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또래애착 관계는 Bronfenbrenner가 제시한 '생태학적 이론'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생태학적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가족, 친구, 학교, 이웃 더 나아가 사회, 문화의 관계 속에서 성숙한다고 말하고 있다[32]. Bronfenbrenner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가 서로 상호작용 하여 성숙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미시체계란 직접적인 주변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청소년에게는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교사관계 등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이 가정에서 겪은 사건과 경험이 다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3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정 내 부모와의 관계 혹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방식은 또래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인용 매체몰입이 또래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용 매체 몰입을 앞서 비행 혹은 일탈로 전제하였다. Sutherland & Cressey의 차별적 접촉이론[34]에 의하면 비행과 일탈을 일반적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고 보고 있다[35].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특정 매체의 등장인물을 동일시하여 역할을 배우는 경향이 있다[36]. 성인용 매체의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욕구를 대신 충족하는 성인용 매체의 등장인물의 행동을 모방한다면 뚜렷한 성 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또래들과 이성교제 및 성행동, 이성인 또래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 또래와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3].

부모의 양육방식과 성인용 매체몰입과의 관계는 Gottfredson & Hirschi의 '자기통제이론'을 통해 설명

할 수 있다[37]. 이 이론에 의하면 생애 초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사회화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경우 자기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거나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통제력이 낮을 경우 범죄나 비행을 일으킬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자기통제이론에서 제시한 생애 초기에 이루어지는 사회화교육은 대부분 가정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애정과 관심으로 돌보지 않고 방임할 경우 아이들의 자기통제력을 상실시켜 성인용 매체에 대해 몰입하는 경향을 높여준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아동과의 약속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등을 모두 방임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38].

부모의 양육방식 중에서도 부모의 방임행동은 특히 아동의 또래관계 및 정서 및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교우관계 및 전반적인 학교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39,40],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우울 및 공격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1,42]. 이 밖에도 이러한 부모의 방임은 각종 청소년 비행행동의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43].

지금까지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방식과 또래애착 간에 성인용 매체몰입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앞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육방식 중 방임행동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배제하고자,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영향요인들 중 성별[4,5], 건강상태 및 자아존중감[4-8], 성적만족도[8], 동아리활동[6], 경제수준평가[4], 형제자매[5]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Fig. 1).

연구문제 1: 부모의 방임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성인용 매체몰입이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방임 효과를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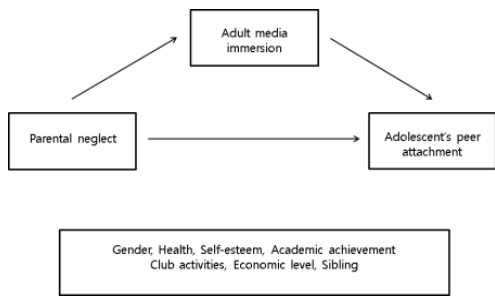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 연구방법

#### 3.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6차(2015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 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1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한국아동·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며, 전국의 아동·청소년들을 표집틀로 하여 대표성이 담보되어 있다[44]. 제6차 자료의 전체 응답자는 2,351명이나, 결측 처리된 케이스를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563명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 3.2 변수측정 방법

##### 3.2.1 독립변수: 부모의 방임

독립변수인 방임은 허묘연[45]의 부모양육행동척도의 항목을 활용하여 구성된 것으로, 총 4문항 4점 척도(1=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된 것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방임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0이다.

##### 3.2.2 종속변수: 또래애착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은 Armsden & Greenberg[46]이 제작한 애착척도(IPPA)를 수정하여 활용한 것으로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총 3범주,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9문항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연구에 맞게 재코딩 하여 분석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4이다.

##### 3.2.3 매개변수: 성인용 매체 몰입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 몰입은 김은정, 이세용, 오승근[47]의 인터넷 중독 척도 문항 중 유해매체와 관련이 있는 문항을 수정하여 구성된 것이다. 총 8문항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연구에 맞게 재코딩 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용 매체 몰입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5이다.

##### 3.2.4 통제변수

우선, 성별은 '0=여자, 1=남자'로 더미처리 하였으며, 건강상태평가는 또래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4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1=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 4=매우 건강하다'로 역코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genberg[48]의 자존감척도를 변안하여 활용한 것으로 10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성적만족도는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해 '1=전혀 만족하지 않다~4=매우 만족한다'로 재구성하였고, 동아리 활동 유무는 '0=없다, 1=있다'로 더미처리 하였으며, 경제수준 평가는 '1=매우 못 사는 편~7=매우 잘 사는 편'으로 재구성하였다. 형제자매유무는 '0=없다, 1=있다'로 더미화 하였다.

#### 3.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v2.16.3을 활용하였다. 우선 분석에 활용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방임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Haye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49].

Hayes의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에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전체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그 효과들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 기존에 사용되던 고전적인 매개효과분석방법인 Baron과 Kenny의 인과단계방법보다 매개효과의 분석방법을 정교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49,50].

## 4. 연구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 변수인 방임의 평균은 7.68,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의 평균은 28.13,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몰입의 평균은 13.01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은 남학생이 503명(89.3%)으로 여학생(60명: 10.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평가는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가 2명(0.4%),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가 52명(9.2%), '건강한 편이다'가 315명(56.0%), '매우 건강하다'가 194명(34.5%)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29.4로 나타났다. 성적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49명(8.7%),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가 202명(35.9%), '만족하는 편이다'가 257명(45.6%), '매우 만족한다'가 55명(9.8%)로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 유무는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은 200명(35.5%), 참여경험이 없는 학생은 363명(64.5%)로 나타났다. 경제수준 평가는 '매우 못 사는 편'이 4명(0.7%), '못 사는 편'이 33명(5.9%), '약간 못 사는 편'이 84명(14.9%), '보통 수준'이 325명(57.7%), '약간 잘 사는 편'이 77명(13.7%), '잘 사는 편'이 37명(6.6%), '매우 잘 사는 편'이 3명(0.5%)로 나타났으며, 형제자매유무는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은 58명(10.3%),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은 505명(89.7%)로 확인되었다.

### 4.2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주요변인들의 Pearson 상관계수 값이 .4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또래애착과 독립변수인 방임( $r=-.37, p<.001$ )은 부적 상관관계를,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몰입( $r=-.26, p<.001$ )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몰입과 독립변수인 방임( $r=.17, p<.001$ )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3 방임과 또래애착 간 성인용 매체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방식과 또래애착 간 성인용 매체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각 단계별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VIF(variance

Table 1.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N=563)

	Parental neglect	Adult media immersio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Parental neglect	1		
Adult media immersion	.17***	1	
Adolescent's peer attachment	-.37***	-.26***	1

\*\*\*p<.001

inflation factor)를 확인해본 결과 모든 변수들이 10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 또한 0.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Model 1에서는 방임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또래애착에 대한 F값이 27.59( $p<.001$ )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의 설명력(Adj R<sup>2</sup>)은 27.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방임의 B값이 -.52( $p<.001$ )로 나타남에 따라 종속변수인 또래애착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의 B=-1.08( $p<.05$ )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B=.34( $p<.001$ )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이 증가할수록 또래애착은 낮아지고, 성별이 여성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인 방임이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의 F값이 6.29( $p<.001$ )로 확인되어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Adj R<sup>2</sup>은 .07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방임의 B값이 .25( $p<.01$ )로 나타남에 따라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의 B=1.91( $p<.001$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B=-.15( $p<.001$ )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이 증가할수록, 성별이 남성이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몰입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del 3에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Model 1에 추가로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의 F값이 26.76( $p<.001$ )로 나타나 모형은

Table 2. Mediating Effect of Adult Media Immersion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Adolescent's Peer Attachment (N=563)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S.E)	t	B(S.E)	t	B(S.E)	t
(constant)	23.60(1.47)	16.08***	13.10(1.60)	8.21***	25.54(1.54)	16.63***
Gender	-1.08(.47)	-2.29*	1.91(.51)	3.71***	-.80(.47)	-1.69
Health	.02(.24)	.09	-.16(.26)	-.60	-.00(.24)	-.01
Self-esteem	.34(.04)	9.46***	-.15(.04)	-3.87***	.31(.04)	8.83***
Academic achievement	-.05(.20)	-.23	.23(.22)	1.07	-.01(.20)	-.06
Club activities	.04(.31)	.14	-.22(.33)	-.66	.01(.30)	.04
Economic level	-.07(.16)	-.47	.19(.17)	1.12	-.04(.15)	-.29
Sibling	-.71(.48)	-1.47	-.70(.52)	-1.32	-.81(.48)	-1.70
Parental neglect	-.52(.07)	-7.18***	.25(.08)	3.16**	-.48(.07)	-6.70***
Adult media immersion	-	-	-	-	-.15(.04)	-3.83***
<i>Adj R<sup>2</sup></i>	.28		.07		.30	
<i>F</i>	27.59***		6.29***		26.76***	

\*p<.05, \*\*p<.01, \*\*\*p<.001

Table 3. Verification Result of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 Using Bootstrapping

	Effec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Bias-Corrected Boot LLCI	Bias-Corrected Boot ULCI
Indirect effect	-.04	.02	-.08	-.01
Direct effect	-.48	.07	-.62	-.34
Total effect	-.52	.07	-.66	-.38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방임과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몰입, 통제변수를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방임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8, p<.001). 하지만 매개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Model 1에 비해서 통계적 영향력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52 → B=-.48). 또한 Model 3에서 매개변수인 성인용 매체몰입은 또래애착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15, p<.001). Model 3에서 통제변수는 자아존중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B=8.83, p<.001), Model 1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Hayes[49]는 부트스트래핑의 재추출수를 5,000번 이상으로 권유하는데, 이에 따라 표본을 5,000번 재추출하였다. Table 3을 살펴보면,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방임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인용 매체몰입에 의해서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방임과 또래애착간에 성인용 매체몰입이 매개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제6차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패널 중 총 563명을 대상으로 Hayes[49]의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이 증가할수록 또래애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관심과 애정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경우 또래 간 애착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없이 방임한다면 또래 간 애착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애정과 감독의 양육태도는 또래애착을 증가시키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또래애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5,31]. 또한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또래애착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26].

둘째, 성인용 매체몰입은 부모의 방임과 또래애착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방임이 또래애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모의 방임이 증가하면 성인용 매체 몰입은 높아지게 되고 이는 또래간의 애착을 낮아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듯이 청소년시기에 또래관계는 건강한 자아정체성 형성 및 사회적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 부모가 가정 내에서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교육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은 자신감을 잃고 또래관계에서도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또래와의 긍정적 애착형성을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지역사회복지관이나 학교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현재 학교나 지역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다. 초, 중학교의 경우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또래간의 왕따, 폭력,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 외부의 강사를 통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시되는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1]. 또래관계의 양상과 문제들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아이들에게 보다 더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은 계속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교육이 특강 형태의 이론중심교육에 그치지 않고, 필수적인 교육으로 자리 잡아서 보다 다양한 방식의 교육적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이용에 관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이다. 성인용 매체몰입으로 인해 잘못 자리 잡은 성의식은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건전한 이성관계를 맺는 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 청소년의 성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접근하고 몰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아이의 발달과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의 아이들을 몰래 이용하여 성인용 매체에 접근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만일 부모가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과 성적 발달에 관심이 없이 방치해둔다면 아이들이 성인용 매체에 접근 하는 것이 보다 쉬울 것이고 이는 성인용 매체 몰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

다. 지금까지는 매체 중독과 관련하여 청소년 자녀들의 게임중독,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부모교육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나[52,53], 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성인용매체 이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가정 내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부터 범죄를 저지른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는 부모교육명령제도가 소년법의 조항으로 시행되었다[54]. 이는 이미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인 부모교육이라면 이제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성인 매체에 관한 부모교육이 학교나 지역사회를 통해서 의무적, 구체적,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인용 매체에 몰입하는 것은 또래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용 매체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런 시간 중에 성인용 매체 교육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시간이 매우 짧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해서[55] 실제로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 접근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해 효과적이지 못하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일반적으로 교과과목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55]. 이는 성교육이 학생들의 정규 교과목에 편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의 수업에 성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직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내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성인용 매체의 위험성을 알리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각종 매체의 홍수 속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받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 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몰입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기 힘들어 자극적인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이 한번 이러한 매체에 몰입하게 될 경우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정신,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는 청소년의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또래애착간에 청소년의 성인용 매체몰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으나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혹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중학생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

나 앞으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 집단별로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연령별로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처음 매체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로 매우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나이일수록 그 부정적 영향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J. P. Allen, "The attachment system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pp. 419-435, 2008.
- [2] D. A. Reynolds, T. M. Crea. "Peer influence processes for youth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ce* Vol.43, pp. 83-95, 2015.  
DOI: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5.05.013>
- [3] T. J. Dishion, M. T. Jessica, "Peer contagion i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62, pp. 189-214, 2011.  
DOI: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93008.100412>
- [4] E. J. Park, Y. R. Lee, S. H. Lee, "The Effects of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on Their Peer Attachment: Focusing on School Level Difference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 pp.31-56,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2.31>
- [5] B. R. No, S. R. Park, S. H. Yi, H. J. Park, "Trajectories of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their predictors : A multiple group analysis according to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Vol.27, No.1, pp.149-177, 2016.  
DOI: <https://doi.org/10.14816/sky.2016.27.1.149>
- [6] H. W. Jo, S. H. Jo, Y. H. Kim, "Effects of Youth Voluntary Service on Sense of Citizenship, Positive Self-perception, and Peer Relation - The Comparison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 *Kor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1, No.4, pp. 729-744, 2012.  
UCI: G704-001335.2012.21.4.008
- [7] M. Y. Kim, H. H. Chung,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Self-Esteem and Depression: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4, No.3, pp.101-116, 2015.  
DOI: <https://doi.org/10.17643/KJCE.2015.24.3.06>
- [8] Y. R. Lee, E. J. Park, S. H. Lee, "Differences in Personal Development and Developmental Environment of Fifth Year Male and Fe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ntrasted by Peer Attachment Typ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12, pp.337-366, 2018.
- [9] C. S. Hwang, "Parent- and Peer Attachments of Early Adolescents and the Transition of Attachment Func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Vol.17, NO.1, pp. 201-225, 2006.  
UCI: G704-001385.2006.17.1.006
- [10] S. J. Woo, "Original Articles :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and Children's Peer Attachment, on Mobile Phone Dependen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51, No.6, pp. 583-590, 2013.  
DOI: <https://doi.org/10.6115/fer.2013.51.6.583>
- [11] H. E. Ryu, E. H. Ha, "On-Off Line Friendships among Adolescents with Different Types of Internet Addiction", *Studies on Korean Youth*, Vol.20, No.2, pp. 5-29, 2009.
- [12] J. Y. Park, *The effect of internet game addiction dangerousness on the e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in school-age children*, Th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6.
- [13] J. W. Song, *The effects of early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on peer attachment : the mediating effects of ego-identity*, The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18.
- [14] K. Y. LEE, S. Y. Choi, S. C. Shin, S. H. Jang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on Peer Relationship, Their School Adjustment and Peer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5, No.4, pp. 111-133, 2008.  
UCI: G704-002141.2008.5.4.004
- [15]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 Survey on Illegal and Harmful Internet Informat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7.
- [16] D. Y. Je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ew of Violence and Violence with Crim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Vol.3, pp. 233-255, 1994.
- [17] J. Y. Lee, M. H. Lee, "Sexual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who often view Sexual Material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1, No.1, pp.32-41, 2003.  
UCI: G704-000485.2003.11.1.011
- [18] E. K. Seo, *Study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Image-Medium and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The Department of Correctional Education,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03.
- [19] E. S. Cho, "Associations between the Internet



- Pornography Preference and Adolescent's Risk Sexual Behavior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10, pp.291-314, 2013.  
UCI: G704-000387.2013.20.10.015
- [20] B. S. Hong, M. A. Nam "Effects of Exposure to Internet Phonography on Sexual Assault and Prostitu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40, pp.9-39, 2012.  
UCI: G704-000946.2012..40.002
- [21] Y. O. Nam, S. J. Le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Cyber-sex Addiction, Exposure to Cyber Obscenities and Cyber Sexu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9, No.3, pp.185-212, 2002.  
UCI: G704-000387.2002.9.3.014
- [22] J. H. KO, Y. D. Ji. "The Roles of Several Mediators and Moderators Between Pornography and Rape Myth",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0, No.1, pp.87-105, 2002.  
UCI: G704-000485.2002.10.1.006
- [23] S. S. Hyun,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environment academic performances, self-concept and sexual behavior of adolescence*,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00.
- [24] C. S. K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Variables to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Department of Education,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2008.
- [25] Y. R. Lee, "The impact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behavior on adolescents' attachment toward peer",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Vol.10, pp.99-125, 2013.  
UCI: G704-SER000001860.2013.10..005
- [26] H. K. Ham, *The Effect of Mother's Adult Attachment on Children's Peer Relationship and Social Competence*, The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2013.
- [27] J. H. Yoon, *Rela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partners and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and suicide ideat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Industr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0.
- [28] J. S. Han, *Effects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empathy on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and Counseling,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2018.
- [29] H. I. Jo,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Internet Use Motives on Internet Addiction: Self-Control as a Mediator", *Journal of Youth Welfare*, Vol.13, No.4, pp.269-287, 2011.  
UCI: G704-002137.2011.13.4.008
- [30] J. I. Yuh,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Symptoms: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Impulsivity",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7 No.1, pp.101-112, 2015.  
UCI: G704-SER000001622.2015.7.1.006
- [31] Y. S. Kim, H. I. Cho,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itude toward Rearing,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31, No.3, pp.529-561, 2017.  
DOI: <https://doi.org/10.17286/KJEP.2017.31.3.07>
- [32] U. Bronfenbrenner,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2, No.6, pp.723-742. 1986.
- [33] S. H. Heo,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Peer Attachment of the Adolescent: Including an Analysis by Family Income Level*,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niversity of Seoul, 2016.
- [34] E. H. Sutherland, D. R. Cressey,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Deviant behavior*, Vol. 45, pp. 125-131, 1984.
- [35] G. H. Choi, *Factors Affecting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High School Boys in Seoul*,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2011.
- [36] J. T.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Media on Youth Flights and Countermeasures*, Yonsei University, 1995.
- [37] M. R. Gottfredson, T. Hirschi. A General Theory of Crime. p.1-316.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3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sponding to Child Abuse: a Handbook.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9.
- [39] K. W. Park,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and Abuse on the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5, No.1, pp.1-15, 2014.
- [40] H. J. Park, N. M. Hong, I. J. Chung, "Mediating Effects of Parent, Teacher and Peer Attachment in the Influence of Neglect and Abuse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Vol.16, No.4, pp.319-346, 2014.
- [41] J. H. Park, Y. Mi. Lim, "The Moderating Effects of Closeness to Teacher and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Neglect on Adolescents`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1, No.3, pp.87-110, 2014.
- [42] J. Y. An, Y. E. Son, S. I. Nam, "The Effects of Abuse and Neglect from Parent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21, No.12, pp.261-284,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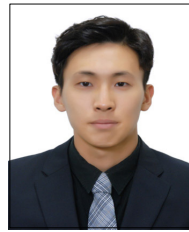
- [43] M. Hoeve, J. S. Dubas, V. I. Eichelsheim, P. H. Van der Lan, W. H. Smenk, J. R. M. Herr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7, pp.749-775,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802-009-9310-8>
- [44]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User Guide. p.1-10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7
- [45] M. Y. Huh,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Doctoral'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91, 2000.
- [46] G. C. Armsden,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No.5, pp.427-454, 1987.
- [47] E. J. Kim, S. Y. Lee, S. G. Oh, "The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Scale(K-AIA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2, No.1, pp.125-139, 2003.  
UCI: G704-000007.2003.22.1.004
- [48]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3-326,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49] A.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pp.1-507, Guilford, 2013.
- [50] D. Y. Won, J. H. Noh, Y. S. Shin, "Health Inequality by Assets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Gyeonggi Research Institute*, Vol.19, No.3, pp.205-240, 2017.
- [51] H. K. Kim, Y. M. You,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for the Web of Conceptual Relations of a Alternative Parent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0, No.1, pp.1-30, 2018.
- [52] I. S. Oh, C. J. Kim, C. Kim, "The effects of a parent-child counseling program on preventing elementary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Vol.11, No.11, pp.307-316, 2007.  
UCI: G704-000854.2007.11.3.012
- [53] M. K. Jang, "Development of online parental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ng adolescent game-overus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3, No.2, pp. 277-297, 2011.  
UCI: G704-000523.2011.23.2.010
- [54] C. H. Roh, "Foreign Material : A Status outline of International Parenting order relating to Juvenile issues", *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57, No.6, pp.262-285, 2011.

DOI: <https://doi.org/10.17007/klai.2008.57.6.008008>

- [55] J. S. Lee, "The Content Analysis of Sexual Education in the textbook based on 7th Educ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23 No.4, pp.287-307, 2010.  
UCI: G704-000635.2010.23.4.011

#### 이 동 준(Dong-Jun Lee)

[정회원]



- 2017년 8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과정)
- 2018년 7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보
- 2018년 3월 ~ 현재 : 한국 중독재활복지학회 연구원

<관심분야>

사회복지, 중독, 아동, 청소년

#### 맹 성 준(Seong-Jun Maeng)

[정회원]



- 2018년 6월 ~ 2019년 3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보
- 201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19년 4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사회복지정책, 가계부채, 자산

최 상 설(Sang-seol Choi)

[정회원]



- 2010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박사 수료)

<관심분야>

돌봄정책, 보육정책

---

김 은 경(Eun-Kyung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 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사)한국가족보호협회 대표이사
- 2017년 3월 ~ 현재 : 승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겸임교수
- 2018년 9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복지, 가족복지